

# 임시수조 경기장·재건축 선수촌 '저비용 고효율' 일등공신

## 광주세계수영대회 성공 이끈다

세계를 '평화의 물결 속으로'(DIVE INTO PEACE) 안내하게 될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하계동계올림픽, 월드컵축구대회, 육상선수권대회와 더불어 세계 5대 스포츠 빅 이벤트로 평가받고 있다. 광주일보는 성공적인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를 위해 다섯차례에 걸쳐 대회 준비 상황과 과제 등을 점검한다.

### 1 대회시설 건설 순조

중국의 스타인 쑨양 등 세계적인 수영선수들의 역량을 감상하게 될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경기장과 선수촌 건립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대회는 '저비용 고효율 대회'로 치러진다. 기존 남부대 수영장을 증축해 사용하고, 나머지 경기장은 임시수조를 활용하는 등 임시로 시설을 설치한 뒤 철거할 계획이기 때문에 경기장 건설 과정에 큰 어려움이 없는 상태다. 또 현재 흑자 운영되고 있는 남부대 수영장은 대회 이후 더욱 많은 수영인이 찾을 것으로 기대되며 선수촌 역시 하계U대회와 같이 노후 아파트를 재건축해 사용하면서 비용도 줄었다.

먼저 선수촌은 전 세계 209개 국에서 1만5000여 명의 선수와 임원 등이 머무르

메인 경기장 남부대 수영장 시설 증축 공사 5월중 완료  
선수촌 아파트 3월까지 완공

### 경기장 설치 상황

| 종목     | 장소           | 진행상황          |
|--------|--------------|---------------|
| 경영다이빙  | 남부대 시립 국제수영장 | 착공 (18.9월)    |
| 아티스틱수영 | 영주종합체육관      | 착공 (18.11월)   |
| 수구     | 남부대 종합운동장    | 착공 (18.9월)    |
| 오픈워터수영 | 여수엑스포 해상공원   | 착공예정 (*19.3월) |
| 하다이빙   | 조선대 축구장      | 착공 (*18.11월)  |
| 선수촌    | 송정주공아파트      | 준공 (*19.3월)   |

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다. 선수촌은 13개동에 959세대, 미디어촌은 12개동에 701세대가 건축되며 선수, 미디어진, 수영동호인이 선수권대회와 마스터즈 대회를 치르는 기간과 사전시설 테스트 기간을 포함해 6월 20일~8월 21일까지 총 63일간 머물게 된다.

또 선수촌은 6000여명이 동시에 입실할 수 있으며 지난해 12월 기준 공정률은 82%로 오는 3월 완공된다. 대회가 끝나면 지난 하계U대회 화정주공아파트와 같이 주민이 입주하게 된다. 이 밖에도 선수촌에는 식당, 회의실, 운영실 등이 들어서며 은행, 편의점, 세탁소, 카페 등 각종 편의 시설도 조성된다. 선수촌은 7월 2일 프레스 오픈을 거쳐 5일 정식 개관한다.

경기장 역시 하계U대회때 수영 경기장이었던 남부대 수영장을 국제 공인 1급 시설로 만들기 위해 증축 중이다. 우선 관람석을 3290석에서 1만1000석으로 증축하고 각종 운영시설도 두 배 이상 늘린다. 또 경기장 바로 옆에 3000㎡ 규모로 국제 방송신호 제작과 송출 등을 전담하게 될 IBP(국제방송센터)가 조성된다. 또, 기자작업실과 사진기자실, 기자회견장, 미디어라운지 등이 모여있는 1800㎡ 규모의 MPC(메인 프레젠테이션)가 들어선다. 주경기장인 남부대 수영장은 5월에 완공 예정이다.

다이빙, 아티스틱수영 경기가 펼쳐질 영주체육관은 임시수조 2개를 설치하고 운영실과 관람석을 개보수 중이다. 수구 경기장도 펼쳐지는 남부대 종합운동장에도 임시수조 2개가 설치된다. 수영대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하다이빙은 무등산이 한눈에 들어오는 조선대 축구장에 높이 27m의 하다이빙 타워와 임시수조 1개가 설치된다.

이 밖에 장거리 수영인 오픈워터수영은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올해 첫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수엑스포해상공원에 2000석의 관람석과 운영실을 설치해 직접 바다에서 경기를 치를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 이들 6개종목의 시설들은 모두 5월내에 완공되며 대회가 끝난 이후 바로 철거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문 대통령 130명 초청 '기업인과의 대화'

삼성·현대차·효성 등 참석...한진·부영·대림 제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인 등 약 130명을 초청해 '2019 기업인과의 대화'를 개최한다.

청와대는 14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경제계와 소통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간과 정부가 함께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업이 커 가는 나라,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하며, 자유롭게 토론을 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이뤄진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뿐 아니라 함께 참석한 부처 장관도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서 자유롭게 토론에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간담회에 대기업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5대 그룹 총수를 비롯해 최정우 포스코 회장, 허창수 GS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김규영 효성 대표이사 등 22명이 이날 행사에 참석한다.

중견기업 중에는 정몽원 한라 회장, 손정원 한온시스템 대표, 오우현 SM그룹 회장, 방준혁 넷마블 회장,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등 39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한상의 및 지역상공회의소 회장단 참석자는 67명이다.

정부에서는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산업부·과기정통부·고용부·환경부·중기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토부 차관 등 기업활동과 관련된 부처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한다. 청와대에서는 비서실장, 정책실장, 경제·일자리·사회·정무·국민소통수석, 경제보좌관 등이 참석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한다.

한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참석 기업 명단은 대한상의의 추천으로 결정됐다"며 "대한상의는 대기업의 경우 자 산순위를 고려했고, 중견기업은 각 업종을 대표하는 기업을 추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제외된 기업은 한진그룹·부영그룹·대림산업"이라며 소개하면서 "사회적 여론을 고려했고, 동시에 논란이 다시 부각될 경우 기업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진그룹의 경우 오너일가의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일으켰으며 부영그룹은 이종근 회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 선고를 받았다. 또 대림산업은 이혜유 부회장이 운전기사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벌금 1500만원 처분을 받은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기자 tuim@

## '노사 상생도시' 광주형 일자리 돌파구 될까

노사 소통 경험·노하우 기반 선언 협상팀 재정비 현대차 다시 접촉

노사 상생은 현실에서 실현되기 어렵다는 주장이 일반적이다. 사업주와 노동계의 갈등·마찰은 꾸준히 반복돼 왔으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뚜렷한 방안은 사실상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업의 적정 이윤과 노동 가치에 대한 적정 보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상충 달랐으며, 이를 중재·조율할 만큼 양측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기관, 단체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광주형 일자리'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인 광주시의 역할이 주목을 받았지만, 해묵은 노동계와 기업 간 반목으로 결정적인 순간마다 발목이 잡혔다.

민선 7기 광주시가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설립사업'(이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쌓인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노사상생도시'를 선언하며 다시 한 번 각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

다. 노사의 상생을 위해 도시 지자체가 노동계, 기업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중간지대'를 형성하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 발전이라는 그 취지를 살려낼 수 있을 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관건이 될 전망이다.

◇노동계와 소통하고, 시정에도 반영=광주시는 우선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영역 확대와 지속성 담보를 위해 '완성차 공장 투자협상팀'을 '광주형 일자리 추진T/F'로 확대 개편한다. 이어 노사상생도시의 필수 조건인 노동계와 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말 4급 상당의 노동협력관을 신설해 현재 공모 중에 있고, '사회연대 일자리 특보'(2급 상당 전문임기제)를 임명해 노동문제와 사회통합형 일자리 창출 전반에 대해 시장을 특별 보좌하도록 할 방침이다. 친노동계 인사를 시장에 편입시켜 이들로 하여금 노동계와 협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이다. 사회연대 일자리 특보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 성공과 노사상생도시 광주를 만드는 일에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민정협의회의 기능과 구성도 강화

한다. 투자유치를 추진중인 완성차 공장의 노사문제뿐만 아니라 광주지역에서 발생하는 노사갈등 전반에 대해 예방 및 조정·중재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맡긴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용섭(사진) 광주시장은 "지난해 12월6일 협약체결이 무산된 이후 광주시는 완성차 공장 유치는 물론 광주형 일자리를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산업전반에 확산시켜 노사상생도시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준비해왔다"고 덧붙였다.

◇'노사상생도시 실현 첫 걸음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 성사'=이 시장은 이날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성공이 노사상생도시의 초석"이라며 현대자동차와 지역 노동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발표한 '노사상생도시 광주' 선언문에도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시켜 '노사상생도시 광주'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로 시작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6일 현대자동차와 협약체결 조인식이 무산된 뒤 협상팀을 재정비한 광주시는 최근 현대자동차와 지역노동계를 상대로 협상을 재가동했다. 양측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중재안을 마련하기로 하는 등 현재 분위기는 긍정적이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한 국제조업의 새로운 성장 모델로 높이 평가한만큼 현대차와 지역노동계의 양보를 얻어낸다면 다른 산업, 다른 지역으로의 파급은 좀 더 수월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시장은 "노사상생도시 광주"의 실현은 험난하고 먼 길이지만 국가가 어려울 때마다 시대정신과 대의를 쫓아 자기희생을 통해 역사의 물꼬를 바로 돌린 광주인 만큼 무너지는 한국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야 할 시대적 책무 또한 광주가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착한보청기협동조합

# 보청기

## 70~50% 할인 이벤트

"불만족시 1달 안에 100% 환불"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뽕뽕~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산수오거리지점  
**062) 362-3336**    돌고개지점

## 태양발전소 분양

동·식물 재배사(건물 위)가중치 1.5배

100KW 월 270만원 예상(+1층 농장 임대비) · 50KW 월 135만원 예상

땅+건물+태양광 년12% 수익

지금대출가능

**연금 발전소**  
**태양광이 효자!!**

분양지역: 영광,영암,완도,진도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100년 기업    정직 · 신뢰

**(주)해가온 개발**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이길영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층